

고용 둔화 한편 기술주 조정 지속에 증시 혼조



미국시황/ESG 김윤정 _yunjeong.kim@ls-sec.co.kr
RA 성현영 _hyseong@ls-sec.co.kr

반도체 이틀째 약세, 다우는 사상최고치 경신

- 미 증시는 DOW +1.14%, S&P500 +0.00%, NASDAQ -0.80% 혼조. 헬스케어, 유틸리티, 필수소비재 등 대부분 업종 상승, 기술주, 임의소비재 약세
-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-5.5%. 마이크론(-5.5%), 샌디스크(-14.2%), 마벨 테크놀로지(-9.8%) 등 주요 반도체 기업 이틀째 큰 낙폭
- 전일 메타(-4.9%)가 발표한 새 사업모델이 공급과잉 우려로 해석된 데 이어, 애플(+4.8%)이 중국산 메모리 업체들과 공급 협의 중이라는 내용이 투자심리 부담

6월 비농업 고용보고서 컨센 대폭 하회

- 6월 비농업 고용 MoM +5.7만명, 전월·컨센 대폭 하회, 이전 4~5월 일자리증가폭도 -7.4만명 하향 조정. 업종별 전문·사업서비스(+3.6만명), 사회지원(+2.5만명) 등이 증가세 주도, 월드컵 특수 기대됐던 여가·접객업(-6.1만명)은 감소하며 시장 예상치 하회 원인
- 6월 실업률 4.3→4.2%로 컨센 하회. 경제활동참가율 61.5%(-0.3%p) 영향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기 어려움. 시간당평균임금 MoM +0.3% 컨센 부합
- 고용지표 발표 후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서지 못할 수 있다는 기대 확대. 국채금리 독립기념일 연휴 전 조기마감한 가운데 통화정책 민감한 2년물 중심 하락 10Y 4.486%(+1.1bp), 2Y 4.139%(-2.7bp)

글로벌 IB, JP 모건 경고 vs BofA 시클리컬 순환매 뷰

- JP 모건은 올 여름 주식시장이 직면할 수 있는 두가지 고비로 하이퍼스케일러 하락과 구리가격 약세를 꼽음.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천문학적 인프라 지출 대비 수익화 지연 및 구리 수요 둔화가 멀티플을 압박할 수 있다고 분석
- 반면 BofA 수브라마니안 하이퍼스케일러 자본지출이 일종의 안정성을 제공하고 있다며 미국경제 낙관. 다만, 향후 상승에 대형 기술주 넘어 산업재, 에너지, 소재 등 경기순환 영역에 주목할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

티커	종목명	수익률 (1D, %)	내용
GOOG	알파벳	-0.5%	유럽연합 사법재판소(CJEU)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관련된 반경쟁적 행위로 구글에 부과된 €4.1B의 반독점 과징금을 확정. 이는 단일 기업에 부과된 EU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반독점 벌금. 구글 측은 원심 판결을 준수하기 위해 이미 '18년에 관련 계약을 수정했다고 밝힘
TSLA	테슬라	-7.5%	2분기 차량 인도량이 48.0만 대를 기록하며 컨센(40.6만 대) 대폭 상회했으나 주가는 급락. 공격적인 가격 할인 및 금융 프로모션, 저가형 트림 출시로 재고는 크게 축소되었으나, 평균판매 단가(ASP) 하락에 따른 자동차 매출총이익률 훼손 우려 부각. 반면 경쟁사인 리비안(+8.4%)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분기 판매량 호조를 바탕으로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며 주가 상승
OWL	블루아울	+4.6%	2분기 자사 비상장 크레딧 펀드에서 19~38%에 달하는 대규모 환매 요청이 발생했으나, 전분기 대비 환매 규모가 감소하여 '펀드런' 우려가 정점을 지났다는 월가의 분석이 제기됨. 보유 대출 자산의 양호한 수익률(최근 3개월 2.5%)에도 주목
AVAV	에어로 바이런먼트	+10.7%	미 국방부로부터의 미 육군용 상업용 안티 드론시스템 및 소형무인기 방어체계 역량 공급을 위한 \$500M 규모의 대규모 계약 수주 소식에 주가 강세
PLTR	팔란티어	+2.8%	DA 데이비스의 투자이견 '중립'→'매수', 목표주가 \$165→\$175 상향조정 소식에 주가 강세. DA 데이비스는 주가가 충분히 하락해 밸류에이션이 저렴해졌으며, 팔란티어가 AI모델 활용 과정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기업으로 주목받을 것이라 분석
HOOD	로빈후드	+3.8%	비트코인 반등 및 미즈호 증권의 목표주가 상향 소식에 주가 상승. 미즈호 증권은 목표주가를 \$115→\$130로 상향 조정. 미즈호는 로빈후드를 온라인 중개업계 최초의 글로벌 '하이퍼스케일러' 잠재력을 갖춘 기업으로 평가